

오늘의 말씀: 시편 128:1-4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 2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 2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 3 주의 귀한 은혜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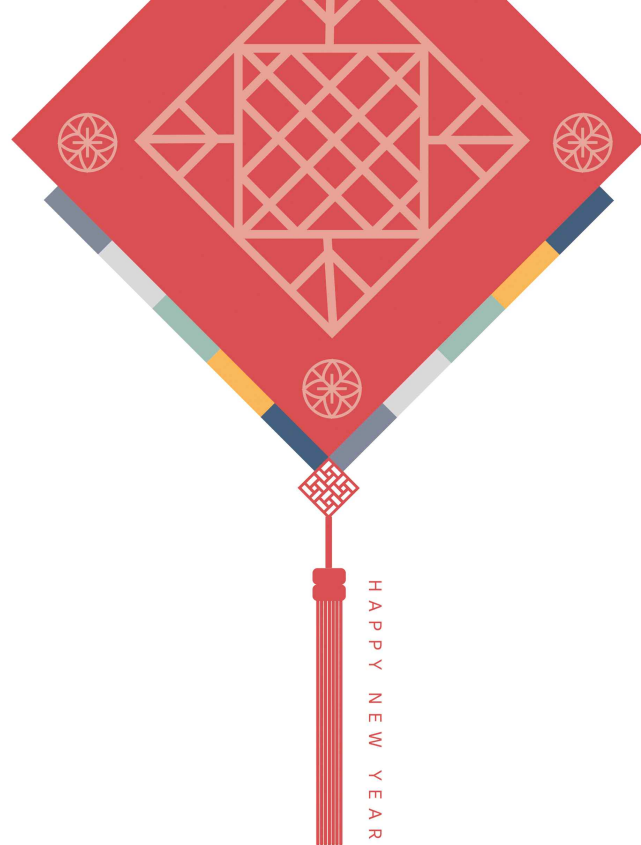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두루 광명하게 비치니 천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 3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쁨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HAPPY NEW YEAR



2024년 설 가정예배모범

| 행복하고 복된 설날 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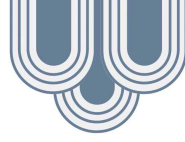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42(배곧동)

(☎)431-4817 / www.isomang.net



설 가정 예배 순서

묵상기도 다 같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1-2)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모두가 늘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이

기 도 가족중에서

성경읽기 시편 128:1-4 온가족이 함께

말씀나눔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 인 도 자

축복과 비전나눔 다 같이

(어른들은 자녀에게 축복해주고 자녀들은 자신의 비전을 가족들과 함께 나눕니다)

찬 송 ..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 다 같이

예가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축복의 시간: 예배 후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식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집니다.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신 소중한 복된 작은 천국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쁨이 되고, 서로 힘이 되고 필요가 되고 의미가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가족이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첫째,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건한 공경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정,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은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둘째, 본문 2절을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 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는 자신이 수고한 그대로 보상을 받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의 열매를 거두고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수확하는 가정은 하늘의 축복과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축복은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열매 맺으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고한 만큼 보람이 있고, 노력한 만큼 기쁨이 있고, 성실히 일한 만큼 열매를 맺을 때, 가장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3절은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입니다. 포도나무가 귀한 것처럼 감람 나무도 생활에 매우 유익함을 제공하는 귀중한 나무입니다. 신실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는 가정은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앞서 나온 말씀 안에서의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꽃피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